#수치 해석 #프로젝트 1

### EigenFace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2018008395 박정호

### #0 Dataset

### 사용한 Dataset - Eigenface

MIT Faces Recognition Project database

3991개의 흑백 128\*128 이미지가 바이너리 형식으로 저장된 데이터이다. Eigenface를 구성하는데 사용했다. 시각화한 대략적인 형태는 아래와 같다.



#### 이미지의 벡터화

```
def getByteArray(filename):
    byte_array = []
   file = open(filename, "rb")
   data = None
   while True:
        data = file.read(1)
        if data == b"":
            break
       try:
            byte_array.append(ord(data))
        except TypeError:
            pass
    return byte_array
def resizeByte(byte_array):
    image = Image.new('L', (128, 128))
    image.putdata(byte_array)
    image = image.resize((32, 32))
    return np.array(image.getdata(), dtype=int)
```

Eigenface를 구하는데 사용할 Dataset을 1024차원의 벡터로 만들 때 사용한 함수이다.

getByteArray는 주어진 파일을 가지고 바이트를 하나씩 읽어서 하나의 바이트 배열을 만드는 함수이고,

resizeByte는 주어진 바이트 배열을 128\*128의 이미지로 두어서 이 이미지를 32\*32로 압축한 뒤, 다시 바이트 배열로 돌려주는 함수이다.

이 두 함수를 이용해서 128\*128짜리 이미지에서 1024 차원의 벡터를 뽑아낼 수 있었다.

#### 사용한 Dataset – Face Recognition

#### Labeled Faces in the Wild

5749명의 사진 13233장이 컬러 250\*250 jpg 이미지로 저장된 데이터이다. Face Recognition을 테스트하는데 사용했다. 대략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 사용한 데이터는 조지 부시, 레오나 르도 디카프리오, 실베스터 스탤론 등을 포함한 유명인 10명의 사진 5장씩이다.



George\_W\_Bush\_ 0208.jpg



George\_W\_Bush\_ 0209.jpg



George\_W\_Bush\_ 0399.jpg



George\_W\_Bush\_ 0444.jpg



George\_W\_Bush\_ 0518.jpg



Leonardo\_DiCap rio\_0001.jpg



Leonardo\_DiCap rio\_0002.jpg



Leonardo\_DiCap rio\_0006.jpg



Leonardo\_DiCap rio\_0007.jpg



Leonardo\_DiCap rio\_0009.jpg

#### 이미지의 벡터화

Face Recognition에 사용할 Dataset을 1024차원의 벡터로 만들 때 사용한 함수이다.

테스트는 다른 파일에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 소스코드는 단순히 이미지의 흑백 변환과 크기 압축만 진행한다.

또한 테스트의 용이성을 위해 각 사람 별로 0~9까지 번호를 매기고, 이미지도 사람 별로 0~4까지 번호를 매겨서 저장했다.

## #1 Eigenface 구현

#### Eigenface 구하기

우선 앞에서 만든 3991개의 1024차원 벡터를 가지고 1024\*3991 행렬을 구축했다. 즉 이 행렬의 column vector 하나하나가 필자가 구한 Dataset의 이미지들인 것이다. 이 행렬을 가지고 SVD를 수 행했다. 사용한 함수는 numpy.linalg.svd 로, 오픈 라이브러리의 메소드이다. 복잡한 과정을 띄는 SVD를 직접 구 현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빠를 것이라 생각해서 라이브러리를 사용했다.

결과로 나온 U, C, V 중 필자는 U를 eigenvector의 행렬로 사용했고, U의 column vector 하나하나를 시각화해서 이미지로 저장했다. 그 이미지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9	9		0	3	•	A.	0	(Î.	0		13.	6	(2)	10	0	5
0.jpg	1.jpg	2.jpg	3.jpg	4.jpg	5.jpg	6.jpg	7.jpg	8.jpg	9.jpg	10.jpg	11.jpg	12.jpg	13.jpg	14.jpg	15.jpg	16.jpg
6	<b>6</b>	5		E	.W	<b>3</b>	<b>@</b>	<u> </u>	1	(A)	1	選	<b>3</b>	A	(3)	(3)
17.jpg	18.jpg	19.jpg	20.jpg	21.jpg	22.jpg	23.jpg	24.jpg	25.jpg	26.jpg	27.jpg	28.jpg	29.jpg	30.jpg	31.jpg	32.jpg	33.jpg
13	(8)	100	慮		漁	<b>.</b>	急	A.	<b>1</b>	<b>19.</b>	<b>A</b>		通	8	.Q.	<b>B</b> .
34.jpg	35.jpg	36.jpg	37.jpg	38.jpg	39.jpg	40.jpg	41.jpg	42.jpg	43.jpg	44.jpg	45.jpg	46.jpg	47.jpg	48.jpg	49.jpg	50.jpg
51.jpg	52.jpg	53.jpg	54.jpg	55.jpg	56.jpg	57.jpg	58.jpg	59.jpg	60.jpg	61.jpg	62.jpg	63.jpg	64.jpg	65.jpg	66.jpg	67.jpg

#### Eigenface 구하기

실제로 face recognition에서 사용한 eigenface들은 상위 70개이다.

```
def showVectorAsImage(vector, image_name):
                                                구한 eigenface 들을 이미지로 저장하는 과정이다.
   image = Image.new('L', (32, 32))
                                                벡터를 이미지의 픽셀로 나타낼 수 있는 범위인
   image.putdata(vector)
                                                0에서 255 사이의 값으로 스케일링했다.
   image.save(image name)
for i in range(U.shape[0]):
                                                단, 이렇게 구한 이미지는 단순히 시각화를 위한 것으로,
   minimum = min(U[i])
                                                실제 계산은 U의 column vector를 가지고 진행했다.
   maximum = max(U[i])
   for j in range(U.shape[1]):
      visualized_U[i][j] =
      int(255*(U[i][j] - minimum)/(maximum-minimum))
   showVectorAsImage(visualized_U[i], 'eigenfaces/'+str(i)+'.jpg')
이렇게 1024개의 eigenface를 구하긴 했으나,
```

70개 이후부터는 얼굴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노이즈가 심했기 때문에 굳이 face recognition에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2 Face Recognition 구현

#### 특정인의 coefficient vector 구하기

```
def getCoefficient(name, testset, eigenfaces, mean_face): 각 사람별로 coefficient vector를 구하는 과정이다.
   result = np.zeros((eigenfaces.shape[1],))
   for i in range(5):
       filename = testset+str(i)+'.jpg'
       image = np.asarray(
           Image.open(filename, 'r').convert('L')
           ).reshape((1024,))
       x = []
       for row in eigenfaces.T:
          x.append((image@row))
       saveResultImage(eigenfaces@np.array(x)+mean_face,
                       testset+'result'+str(i)+'.jpg')
       result += np.array(x)
   result /= 5
   return (name, result)
```

사람의 이름과 해당 사람의 이미지가 저장된 디렉토리, eigenface 행렬, 그리고 초반에 구한 얼굴들의 mean vecto를 인자로 받는다.

디렉토리의 사진 5개를 1024의 벡터로 해석해와서, 각 eigenface와 곱하면서 해당 eigenface의 계수를 구한다.

이렇게 구해진 coefficient vector 5개를 평균내서 해당 사람의 coefficient vector를 구한 뒤,이름과 같이 return했다.

이렇게 모인 (이름, 벡터)의 tuple은 하나의 리스트에 저 장되어 다음 함수에서 쓰인다.

#### Face Recognition Test

```
def processTest(coefficient, eigenfaces, filename):
    image = np.asarray(
        Image.open(filename, 'r').convert('L')
       ).reshape((1024,))
   x = []
   for row in eigenfaces.T:
        x.append((image@row))
   x = np.array(x)
   dist = None
    result = None
   for name, ce in coefficient:
        v = x - ce
        if dist != None:
            if dist > np.dot(v, v):
                dist = np.dot(v, v)
                result = name
        else:
            dist = np.dot(v, v)
            result = name
    return resul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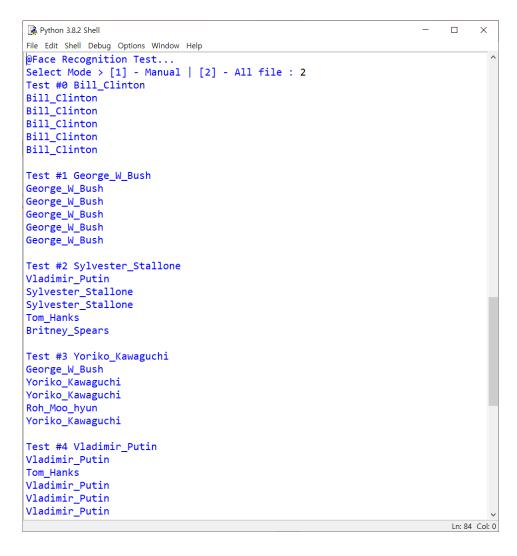
주어진 이미지를 가지고 특정인을 파악하는 함수이다. Coefficient는 앞에서 구한 (이름, 벡터)의 tuple을 저장 한 리스트이며, filename은 face recognition을 수행할 이미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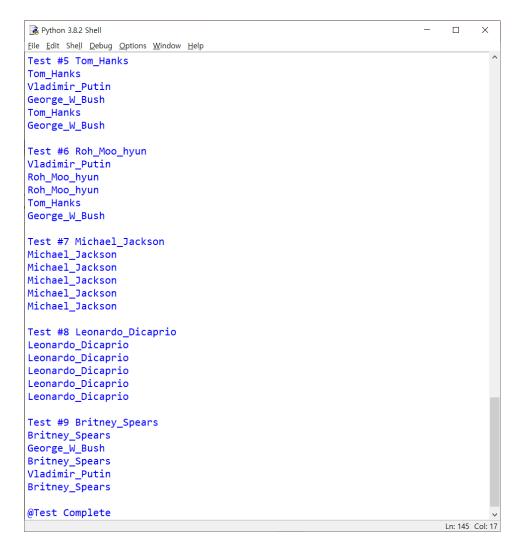
주어진 이미지의 coefficient vector를 구한 뒤, 앞에서 구해 둔 coefficient vector 들과 거리를 비교하면서 가장 가까운 coefficient vector를 찾는다.

여기서, 가장 가까운 벡터에 대응되는 이름이, 해당 이미 지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으로 판단했다.

# 결과와비교

### Eigenface를 이용한 Face Recognition





#### Eigenface를 이용한 Face Recognition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eigenface 70개로 진행한 face recognition test이다.

대체로 높은 정확도를 보였으나, 실베스터 스탤론, 톰 행크스, 브리트니 스피어스 등에서는 인식의 정확도가 낮은 경우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다.



George\_W\_Bush\_ 0208.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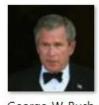
George\_W\_Bush\_ 0209.jpg



George\_W\_Bush\_ 0399.jpg



George\_W\_Bush\_ 0444.jpg



George\_W\_Bush\_ 0518.jpg



Britney\_Spears\_0 001.jpg



Britney\_Spears\_0 005.jpg



Britney\_Spears\_0 009.jpg



Britney\_Spears\_0 010.jpg



Britney\_Spears\_0 014.jpg

정확도가 높게 나온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이미지와, 정확도가 낮게 나온 미국 배우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이미지이다.

가장 큰 차이는 배경색의 일관성이었다. 아무래도 얼굴만 crop된 이미지를 찾기 힘들어서 배경을 포함한 Dataset을 사용했더니, 배경색으로 인한 정확성 감소를 보게 되었다. 또한, 얼굴 색조라던지, 헤어스타일 등, 얼 굴의 특성이 일정하지 못한 경우도 이 얼굴 인식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Eigenface를 이용한 얼굴 복원

얼굴 인식 테스트를 수행하면서, coefficient vector와 eigenface matrix를 곱해서 이미지 복원도 같이 시도를 해보았다. 여기서 비슷한 이미지가 도출된다면, 같은 얼굴로 인식된 근거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옆의 사진들은 eigenface로 복원한 얼굴들인데, Test 0 과 8은 얼굴 인식이 성공적이었던 케이스이고, Test 5와

9는 성공적이지 못한 케이스이다.



















result3.jpg



















예상대로, 성공적인 케이스들은 모두 육안으로 보기에 유 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배경색도 거의 일정하게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성공적이지 못한 케 이스들은 이미지의 모양도 제각각이며, 배경색도 일정치 못한 것을 볼 수 있다.









result4.jpg JPG 파일

배경색이나, 얼굴형 등이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Test 0

Test 8

Test 5

Test 9

#### Face Recognition 방식의 문제

필자가 구현한 face recognition은 주어진 사람의 이미지 5개에 대해서 각각 coefficient vector를 구하고, 이벡터들의 평균값을 구해서 그 값을 그 사람을 나타내는 coefficient vector로 쓰는 방식이었다. coefficient vector를 가지고 특정인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했지만, 이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0.jpg JPG 파일 553바이트



1.jpg JPG 파일 629바이트

일 |트





JPG 파일 583바이트



4.jpg JPG 파일 평균을 구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같은 사람이면 coefficient vector가 비슷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평균을 구한 것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배경색, 얼굴 특징의 변화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외적인 데이터가 평균을 크게 움직일 수도 있었다.

특히 이번 과제처럼 기준점을 만드는 데이터의 수가 5개 정도로 작은 경우에는 이 문제는 더욱 크게 작용했다.

옆의 데이터처럼 5개의 이미지의 배경색이 모두 다르고, 헤어스타일이나 표정이 조금씩 다른 이미지의 경우 평균을 낼 경우 그 어느 이미지와도 가깝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가 결과값으로 도출될 수도 있다.

#### 개선점

- 데이터의 일관성
   최대한 일관성 있는 데이터를 준비해야 더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 2. 데이터 보정의 필요성 또한 의외성을 가진 데이터를 어느 정도 보정할 수 있다면 데이터가 좀 많이 퍼져있더라도 결과가 성공적일 것이다.
- 3. 더 많은 양의 데이터 또한 얼굴 인식의 기준을 구축할 때도, 많은 양의 데이터를 사용한다면 일부 데이터가 예외적이더라도 평균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 4. 얼굴 인식 방법의 개선 단순히 평균을 구하고, 이 평균에 가장 가까운 벡터를 판단하는 것보다 더 정밀한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